

# '새로운 전북 자문단' 경제·사회 분야 위원 위촉

### 단장 유희열 前 과기부 차관 위촉·신상훈 前 신한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사장 등 10명 구성... 활발한 추진동력 기대

전북도가 도정 핵심현안에 대한 추진동력을 제공할 '새로운 전북 자문단' 경제·사회 분야 위원 10명을 위촉했다.

도는 지난 12일 전라북도 서울본부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각각 수여한 뒤 자문위원들과 도정 주요현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경제·사회 분야 학계와 재계, 언론계 등에서 대표직을 역임하는 등 해당 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받는 인사들로 구성됐으며, 단장은 현재 한국 무역보험공사 비상임이사로 활동 중인 유희열 前 과기부 차관이 맡게 됐다.

자문위원으로 조시영 (주)대창 대표이사 회장, 유근 극동대학교 교양대학 석좌교수, 신상훈 前 신한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사장 김홍규 아신회장, 송희영 前 조선일보 주필, 임준섭 (주)유엔아이메디칼 회장, 이원준 명지의



지난 12일 전북도 서울본부에서 열린 새로운 전북자문단 위촉식에 김관영 도지사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각각 수여한 뒤 자문위원들과 도정 주요현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 뒤 새로운 전북을 위해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료재단 이사장, 조봉한 이쿠알기 대표, 김선우 성균관대학교 융합보안대학원 교수다.

'새로운 전북 자문단'은 향후 2년 동안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자문활동은 수시로 이뤄지며, 전북도정 핵심시책의 추진방향과 현안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추진 시 자문위원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추진동력 확보도 기대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우리 전북은 도민들과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을 거둬 나가면서 더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혁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경제·사회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새로운 전북 자문단'으로 모시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북발전을 위해 많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재훈 기자



지난 11일 용인특례시 전북도민회가 발족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 용인특례시 전북도민회 '첫 발'

### 전국 전북도민회 중 37번째 발족

전북도는 지난 11일 창립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특례시 전북도민회(초대회장 고석곤)가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민회는 전국 전북도민회 중 37번째다.

총회에서 창립회장으로 추대된 고석곤 회장은 "용인특례시에 거주하는 전북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회원 상호 간 친목 도모, 고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장학금 수여, 고향방문 행사, 고향사랑기부제 적극 참여, 문화예술 공연 제공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석곤 회장은 지난 9일 고향사랑기부금 최대한도인 500만원을 전북도에 기부한 고액기부자로, 본업인 (주)에이팩코리얼을 운영하면서 도 장학금 전달 등 지역사회에 다양한 봉사를 해왔다.

이날 전북도를 대표해 참석한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용인특례시에서 활동하는 출향도민들이 고석곤 회장님을 중심으로 땀과 열정을 모으고 전북도민회로 발족은 귀중한 성과라며, "전북도와 도민회와의 교류, 협력 및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재훈 기자



지난 12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북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가 열린 가운데, 임상규 행정부지사 등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개최... 수주 확대 협력 다짐

### 도내 투자기업 공장 신축 시 지역업체 수주 확대 방안 마련 공공기관 신규 대형사업 지역업체 공동도급 등 확대 역량 집중

전북도는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확대를 위해 임상규 행정부지사 주재로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12개 공공기관과 건설협회 등이 참여하는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기관별 지역업체 수주 현황 등에 대해 점검하고 수법사례 발표 등을 통해 유관기관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형 건설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 확대, △입찰공고 시 종합심사내찰제 우선

반영 △유사공종 및 인접 공사현장의 품질관리자 통합 배치 허용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전북도는 도내 투자기업의 공장 신축 시 지역건설업체 공사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 협약 초기 단계에서부터 노력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또한, 계획(설계)단계부터 분리 발주를 적극 검토하고, 새만금 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반영, 지역 생산 건설자재 우선 구매 및 지역 장비 사용

확대에도 노력해 줄 것을 각 기관에 요청했다.

특히, 이날 각 기관은 건설 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공공기관이 상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앞으로 지속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더불어 도는 지역 건설업체 수주 하도급, 지역생산 자재 사용 확대 등을 위해 기관 협업 체계 강화와 지원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지역건설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각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잠재된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4월부터 전문 건설협회와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서울 본사를 방문해 도내 민간공동주택 건설현장에 지역업체 하도급 확대를 건의하는 등 지역업체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 도,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당부

전북도는 지난 12일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을 위해 도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며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폐렴은 국내 사망원인 3위(44.4%, 2021년 기준) 질환이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은 매우 치명적이다.

이에 도는 어르신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예방으로 질병 부담을 감소·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2013년부터 폐렴구균 23가 다당백신(PFV23)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만 65세 이상 중 폐렴구균 23가 다당백신(PFV23)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어르신은 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로 1회 접종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 완주산단 민원다발 악취배출시설 점검

전북도는 완주산업단지 인근 악취민원이 지속 발생되는 악취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완주군과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완주산업단지 내 입주한 사업장 중 악취민원이 빈번하게 발생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장 8개소를 선별하고, 28일까지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점검내용은 악취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대기·폐수 등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이다.

위반시에는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하며, 악취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을 검토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